

‘벤처 CEO포럼’ 출범

협회는 지난 21일 한국기술센터 21층 기술인클럽에서 벤처기업 CEO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벤처CEO포럼’ 창립식을 개최했다.



▲ 벤처기업인과 환담하는 윤진식 산자부 장관

‘벤처CEO포럼’ 창립식은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의 축사와 ‘벤처기업과 윤리경영’이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김일섭 부총장의 강연으로 이뤄졌다.

‘벤처CEO포럼’은 국내 벤처CEO들을 대상으로 구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벤처기업 네트워크다. 이 포럼은 CEO간 네트워크 확산과 정보 공유, 벤처관련 주요 현안과 이슈 등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운영 목표로 삼고 있다.



▲ 창립 인사말을 하는 벤처기업협회 장흥순 회장

그동안 벤처CEO들간의 사적인 네트워크는 일부 있었지만, 벤처기업 협회의 주도 아래 공식적인 모임으로 출범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벤처CEO포럼은 특히 기존 벤처기업협회는 물론 인터넷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경기벤처협회 등 지역과 업종별 전체 벤처기업들이 참가, 전체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벤처CEO들의 대표집단으로 출범했다.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되는 포럼은 벤처정책 및 벤처 관련 국내외 정보와 동향, 해외진출, 마케팅, 인사·조직, 경영전략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이슈, 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사례, 기타 벤처 관련 이슈들에 대한 강연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 ‘윤리경영’을 강연하는 이화여대 김일섭 부총장

포럼을 통해 담아내게 되는 벤처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대정부 정책 건의 및 업계 스스로의 투명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큰 줄기로 활용, 향후 벤처업계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도 로커스 김형순 사장, 이니시스 이금룡 사장, 비트컴퓨터 조현정 사장, 안철수연구소 안철수 사장을 비롯한 벤처업계 대표적인 CEO들과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 전자신문 박성득 사장, 산업기술재단 조환인 사무총장, 기술거래소 연원석 사장 등 정부 및 벤처유관 기관·단체장들이 다수 참석, 포럼에 대한 관심을 입증했다.


앞으로 포럼은 협회 회원사를 비롯한 벤처기업 CEO, 벤처 관련 유관 단체장 등은 물론 주제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 또는 벤처 관련 학계 전문가, 언론인, 정부 관계자 등으로 확대 운영, 명실상부한 벤처업계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내게 된다.

또 벤처M&A, 코스닥시장 통합 등 현안문제를 포럼에서 심도있게 논의, 올바른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윤진식 장관이 이날 창립총회 축사를 통해 밝혔듯이 벤처CEO포럼은 앞으로 투명한 경영을 토대로 벤처기업이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기압축 성장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 투명성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벤처업계 스스로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화여대 김일섭 부총장의 ‘벤처기업과 윤리경영’ 강연이 포럼 첫 번째 주제강연으로 진행됐다. 벤처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김 부총장은 강연을 통해 벤처기업의 투명경영, 정도경영 등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한편 윤리적 기업가의 참모습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벤처CEO포럼 참가관련사항은 협회 정책연구실 벤처CEO포럼 담당자(02-6009-4100, 내선 402, E-mail : soyoung0404@kova.or.kr)에게 문의하면 된다. 

경제성장 동력 주역으로서의 벤처 CEO

— 벤처 CEO 창립포럼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 축사 —

오늘의 신록이 한껏 푸르른 아침에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CEO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열정적인 활동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된 경기침체와 이라크 전쟁 등과 같은 불안 요인까지 겹쳐, 한때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굴지의 IT 기업들마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경제관련 연구기관들은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하향 전망하는 등 우리경제 역시 낙관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CEO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활로를 찾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벤처기업 CEO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역사는 5년에 불과하지만, 지난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생산·수출, 고용창출 등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신기술·신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벤처기업의 단기압축 성장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투명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벤처산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양적 성장의 부작용을 시정하고 우리 벤처기업들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창업-성장-퇴출의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시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벤처기업의 건전화와 신뢰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능력 평가중심의 새로운 벤처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간단체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왕성한 벤처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관련 인·허가와 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연장(2003년말 일몰 예정)을 추진하며, 창업대학(원)운영 등 지원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민간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Pre-KOSDAQ유동화펀드』의 설치·운영 등 벤처캐피탈의 활력회복과 투자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이 벤처CEO창립포럼 축사를 하고 있다

넷째,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15개 부처 및 투자기관이 보유한 자체 R&D예산중 중소·벤처기업 지원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산·학협동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설치·운영중인 『벤처기업 해외 지원센터』를 현지화, 전문화하는 등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벤처기업 CEO 여러분!

지금 정부는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기업이 정신으로 충만한 벤처기업 CEO 여러분들께서도 성장동력의 주역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의 주제가 '윤리경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좀더 투명한 경영을 펼쳐 신뢰받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우리 벤처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벤처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에 발족한 '벤처 CEO 포럼'의 번영과 벤처기업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OVA

협회, 벤처기업 M&A활성화방안 회의 개최



협회는 지난 23일 한국기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 M&A활성화방안 회의를 개최했다. 벤처기업 M&A활성화방안 회의는 최근 코스닥 침체, IT산업의 성장둔화 등이 장기화되어 벤처기업의 M&A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M&A 관련 현행제도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협회 장홍순 회장은 최근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벤처기업 M&A활성화를 건의한 바 있다.

협회, 제2차 홍보네트워크 개최

협회는 지난 27일 한국기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홍보네트워크를 개최했다.

제2차 홍보네트워크는 박근우 운영위원장(안철수연구소 커뮤니케이션 팀장), 강원화 간사(유비케어 홍보팀장)의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안건은 홍보네트워크 총회개최 일정 및 준비위원회 구성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총회 시기는 7월로 예정됐으며, 개최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제3차 홍보네트워크 및 총회 준비위원회는 6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2차 경영전략 기획능력 향상과정

협회는 근래 벤처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전략의 방향설정 및 실무 담당자의 기획능력 향상을 도와 효과적인 실천전략으로 응용될 수 있도록 '제2차 경영전략 기획능력 향상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요

- 명 칭 : 제2차 경영전략 기획능력 향상 과정
- 주 최 : 벤처기업협회
- 일 시 : 2003년 6월 3일(화), 14:00 ~ 18:00
- 장 소 : 서울 삼성동 서울벤처인큐베이터 교육장
- 참가비 : 1만원(교재비)

■ 참가시 혜택사항

- CLEAN VENTURE 인증 시 혜택부여

■ 문의 및 참가신청

- 신청처 : KOVA 홈페이지(<http://www.kova.or.kr>)에서 참가신청
- 문의 : 사업팀 이영호(02-6009-4100, 내선 501, E-mail : agrippa@kova.or.kr)

■ 교육과정

시 간	교 육 과 정	배정시간	강 사
14:00 ~ 14:05	주제 및 일정소개	5분	진행자
14:05 ~ 15:00	벤처위기의 본질과 대응전략	55분	정희훈 대표 (이커뮤니티)
15:05 ~ 16:00	기업의 생존전략 - 유희경영과 실천시스템	55분	백운정 박사
16:00 ~ 16:10	Coffee Break(10min)		
16:10 ~ 18:00	경영전략과 전략기획	110분	문철우 교수 (이화여대)
18:00 ~ 18:05	과정에 대한 feedback	5분	진행자

부산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 6월 설립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가 조성된다.

시는 6월까지 부산시와 중소기업청, 동양창투사를 비롯해 지역업체가 참가하는 100억원 규모의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를 조성하기로 하고 출자자를 모집중이라고 밝혔다.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는 시에서 10억원, 중소기업청 40억원, 동양창투사와 산업은행이 각각 1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나머지 30억원의 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는 동양창투사와 협력하여 부산은행을 비롯해 부산 소재 코스닥 및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부산 상공인, 역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출자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6월 말까지 펀드 결성작업을 완료하기로 하고 6월 중 벤처투자펀드 투자운용 규약을 마련하고 투자조인식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는 전문투자기관에서 운용관리 업무를 맡아 5~6년간 운용하며, 동양창투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펀드 운용과 집행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

[경기중소 벤처박람회] '다시 뛰는 벤처'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2003 경기중소·벤처박람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백여개의 도내 업체가 참가해 첨단제품을 선보이

고 카달로그 전시관에는 500여 중소기업체의 카달로그가 전시됐다.

또한 중동과 북미지역 바이어 백여명이 방한해 경기도내 기업 500여곳과 수출상담회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구매상담회와 벤처기업투자설명회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

대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전국 최초 네트워크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타운으로 지정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외부 성장 기업에 대해 입주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네트워크 인큐베이팅 시스템(NIS:Network Incubating System)을 도입한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원장 박광진)은 지역의 유망한 정보기술(IT) 및 문화콘텐츠(CT) 관련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대구소프트

타운에 입주하지 않더라도 진흥원의 첨단장비와 시설 및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클러스터 개념의 NIS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타운의 공간적인 입주 한계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지역의 우수 IT 및 CT기업들이 외부에서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3 여성벤처창업강좌 성황리에 끝나쳐



협회(회장 이영남)는 지난 20일부터 22일 3일간 한국기술센터에서 중기청의 지원을 받아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경영인을 대상으로 여성벤처창업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창업강좌는 제15회 중소기업주간 행사기간중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업마인드를 고취시키고자 창업전반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으로,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김경식 청장, 여성벤처협회 이영남 회장 등 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한 강사진의 현장감 있는 강의로 이루어졌다.

주요강좌 내용은 기업가정신, 창업의 실무절차, 중소·벤처기업정부 지원제도, 사업계획서작성, 지적재산권관리, 세무/회계일반상식, 은행여신제도, 신직업소개(쇼핑몰머천다이어, 이랜서, 회계관리전문가), 직업실무, 창업성공사례등 예비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과제를 다루었다.

또한 이번강좌는 실제 창업준비중인 수강생들의 뜨거운 호응과 향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등 창업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2003년 전회원 워크샵 개최

협회는 오는 6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보광휘닉스파크에서 여성벤처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전회원 워크샵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02-6009-8500)

협회, 국문홈페이지 개편 및 영문홈페이지 구축

협회는 보다 내실있는 회원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국문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한다. 또한 여성벤처CEO의 해외시장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돕기위해서 회원사 기업현황 DB를 구축중이며 영문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자금조달 및 경영·투자유치전략 아카데미 강좌 개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과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강의를 통한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강좌를 개최한다.

- 과 정 명 : 제3차 자금조달 및 경영·투자유치전략 아카데미
- 주 최 : 중소기업청
- 주 관 : 한국여성벤처협회
- 교육기간 : 2003. 06. 25(수) ~ 06. 27(금)
- 교육대상 : 중소·벤처기업 CEO 및 임직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중 이메일, 전화, 팩스 신청
- 신청기간 : 2003. 5. 12(월) ~ 6. 24(화)
- 참 가 비 : 3만원(교재비 포함)
- 계좌번호 : 119-393287-13-001 우리은행 예금주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 문 의 처 :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전화: 6009-8500~1, 팩스: 6009-8500, e-mail: kovwa@hanmir.com)
- 교육장소 : 대구·경북중소기업청 대강당

■ 교육일정

교육일시	과목명	강사
06. 25(수)	14:00 ~ 15:00	경영혁신사례
	15:00 ~ 16:30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전략
	16:30 ~ 18:00	사업성 분석 및 사업계획서 작성
06. 26(목)	13:30 ~ 15:00	M&A 기법 및 실무사례
	15:00 ~ 16:30	벤처캐피탈 투자기법 및 사례
	16:00 ~ 18:00	정부지원제도 - 중소·벤처기업육성시책 -
06. 27(금)	13:30 ~ 15:00	벤처기업의 IPO 전략 - 경영관리 및 재무전략 -
	15:00 ~ 16:30	벤처기업 경영전략과 IR
	15:00 ~ 18:00	기업의 부실징후와 대처방안



“돈 벌려면 業 개념 확장하라”

“업의 개념을 넓히십시오. 술집이 술 파는 업이 아니라 스트레스 날려주는 업이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애깁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상상이 나오기 마련이죠.”

대전상공회의소(회장 김주일)는 지난 달 20일 유성리베라호텔에서 '1시간만에 높이는 비즈니스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56번째 '대전경제포럼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강연자로 나선 삼성경제연구소 지식경영실 강신장 상무이사는 “현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풍부한 상상력이 가미된 창조경영”이라면서 참석자들에게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상상력 필터’를 소개했다.

강 이사가 강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룬 상상력 필터는 ‘業 개념 확장’이었다.

그는 “상상력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업 개념을 창조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기업이 단순히 제품만을 많이 팔겠다는 1차적인 업 개념을 탈피해 직원들이 풍부한 상상력을 일에 쏟아부을수 있도록 업의 개념을 넓히라는 뜻이다.

가령 가정주부가 스스로의 존재를 ‘가정관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 ‘가정의 해피메이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여기는 주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논리다.

강 이사는 “업 개념은 사업의 방향성과도 같다”면서 “사업의 방향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는 조직이 진정한 문제”라고 덧붙여 말했다.

최초가 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상상도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필터다.

강 이사는 비즈니스에서는 ‘더 좋은 것 보다는 맨 처음이 낫다’는 선도자의 법칙이 통하기 마련이라며 두 번째 상상력 필터인 ‘줄의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나온 제품인 ‘몸에 바르는 요구르트’는 줄의 개념의 좋은 사례가 된다”면서 “이처럼 세계에서 유일하고 최고가 되어 틈새시장을 사수하라”고 역설했다.

특히 강 이사는 “감성을 모르면 아무리 뛰어난 상상력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며 “시장에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고객가슴을 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강 이사는 ▲네트워크 ▲대량맞춤 ▲2차적인 이익 ▲솔루션 ▲융복합 ▲모바일 ▲게임이 법칙 ▲귀차니즘 등 상상력을 높여 창조경영을 할 수 있는 기준틀들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강 이사는 “우리는 그 동안 창조력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왔다”며 “창조시대의 진정한 CEO라면 조직원의 잃어버린 창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덕 신제품/신기술 ■

머리 맞춤형 인체공학 베개 시스템 개발

불편한 베개 때문에 잠을 설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사람의 머리를 3차원으로 스캔해 최고로 편안하게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작 시스템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세진 박사팀은 3차원 측정 기술을 이용, 한국인의 머리형상을 측정, 분류해 이를 베개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표준과학연구원의 기본사업인 ‘측정표준 보급 및 정책 연구’ 가운데 인체특성조사 연구를 수행하면서 3D 스캐너를 이용해 머리형상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이를 시범적으로 베개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발은 각종 머리와 관련된 산업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술은 지난 30일 연구 참여 기업인 트위세이버에 기술 이전됐다.

박 박사는 “이번 기술 개발 이후 현재 다양한 기업에서 기술이전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헬멧, 안경, 특수 모자, 가발 분야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